



◇신라 경덕왕 15년에 창건된 석굴암은 우리민족의 찬란한 금자탑인 동시에 민족정신의 응결체로 인정받고 있다. 석굴입석굴(국보 제24호)은 예술성에 있어서 전세계 종교예술사상 가장 탁월한 문화재로 평가받고 있다.

“석굴암을 국보 1호로”

예술미·문화가치 뛰어난 세계적 보물 교계·학계등 ‘남대문’ 대신 재지정 주장

문체부가 일제 지정문화재에 대한 전면 재평가작업에 나선 가운데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문화재를 ‘국보 1호’로 재지정해야 하며, 국보1호로 경주 석굴암이 가장 적합하다는 견해가 교계 내·외에서 제기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석굴암은 지난해 유네스코로부터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보편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예술적 가치에서도 가장 뛰어난 것이다. 정영호 한국교원대 박물관장은 “일본은 한국이 만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미륵보살반가사유상을 국보1호로 지정할 것은 그만큼의 가치와 대표성을 부여했기 때문”이라며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근거로 볼 때 석굴암이 국보1호로 가장 적합하다는 데 동의를 표명했다.

문화재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국보 1호로 지정돼 있는 남대문은 일제시대 조선총독부가 1933년 ‘조선보물고적명승 천연기념물보존법’에 의해 5백3건의 문화재를 최초지정하는데 이어 1962년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일괄 재지정되면서 ‘국보1호’가 됐다. 그러나 예술품이나 그 가치로 보아 ‘국보중의 국보’라는 상징적 의미의 국보 1호로 보기에 크게 미흡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와 같은 의견은 불교계도 마찬가지. 스님으로는 유일하게 문화재위원으로 있는 범하스님(성보문화재연구원장) 역시 ‘국보1호감’으로 석굴암을 추천했다. 우리문화의 우수성과 역사성, 가치적 측면 외에도 우리의 얼을 담은 민족정신을 나타내기에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대륙이 당시 조선총독부가 남대문을 제일 먼저 조사하면서 조사순위에 따라 ‘1호’라는 분류번호를 부여했을 것을 감안할 때 국민정서가 갖는 ‘국보1호’의 이미지는 크게 모자라며, 따라서 뛰어난 예술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는 석굴암을 국보1호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한영우 서울대규장각관장은 “국보1호는 마땅히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문화재여야 한다”며 석굴암을 꼽

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국보1호로 지정된 석굴암은 높이 13.6cm, 너비 7.8cm로 좌대모양이 3각형에 연꽃무늬가 상하대칭형으로 새겨져 있고 왼손에 동근 구슬을 쥐고 있는 모습으로 고려후기 때 원나라 영향을 받아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영우 기자

원효 ‘발심문’ 한국 최초 청구서

오형근교수 논문서 밝혀 중국청규 관계없이 단독 저술

한국의 청규(淸規)사상은 신라시대 원효대사(616~686)로부터 시작됐으며, 원효대사의 발심문(發心文)은 한국적인 청규사상의 최초저술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오형근교수(동국대 불교학과)는 최근 발간된 <불교학원론총 제3집>에서 ‘원효대사와 지눌선사의 청규사상’ 논문을 통해 원효의 청규는 중국의 청규사상과는 관계없이 단독으로 저술한 것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중국의 백장선사(720~814)가 대승의 계율을 근본으로 한 선원 청규를 만들고 그 청규는 백장선사 후 약 백년 후에 고려시대 구산선인이 성립된 시기에 도입됐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설명한 오교수는 이를 도입한 사람은 한국과 중국의 문헌적인 청규사상을 비교해



◇오형근교수

볼 때 지눌선사(1158~1210)임이 분명하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백장선사가 대승계율이라고 말한 유가론과 영락경, 범망경이 신라에 이미 도입돼 원효대사의 ‘발심문’에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진정한 한국의 청규사상은 원효대사(616~686)가 지은 발심문에서 시작됐다고 규정했다.

오교수는 또 원효의 청규사상은 자비와 보시를 강조하고 계율을 중시했으며 수도정진을 중심으로 한 수행사상을 내세우는 것으로, 이는 현재 강원에서 승려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발심수행장에도 잘 나타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한국불교의 청규사상은 원효의 ‘발심문’으로부터 시작해 고려불교에 백장청규사상이 도입되면서 지눌선사에 의해 명실공히 한국 선원의 청규사상이 성립됐다는 것이다. 이후 고려 운몽선사가 ‘천태말학운몽화상경책(天台末學雲夢和尙經策)’이라는 청규사상을 보급해 선원의 질서를 바로잡고자 했으며, 아문선사도 자경문을 저술해 선원의 청규사상에 보탬을 주었다고 오교수는 설명했다. (우)

“정보보존 국민 문화의식 관건”

홍윤식교수 주장 ‘신앙’ ‘민족문화’ 조화 필요

“가장 바람직한 정보보존방안은 사원 본연의 기능위에 승속을 막론한 모든 국민이 정보를 정보로서 인식하고 숭상하게 하는 문화적 분위기 조성이다.”

홍윤식교수(동대 박물관장)는 최근 발간된 <화두와 실천> 제2호에 기고한 ‘불교문화재의 올바른 이해와 보존방향’이란 글을 통해 정보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불교문화재에 대한 개념과 이해를 바탕으로 보존방향이 세워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교수는 불교문화재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불교미술이 종교미술로서 갖는 특성과 종교로서의 불교가 철학·예술·과학 등과 갖는 차이점에 대한 확실한 견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즉 철학과 과학이 보편타당한 가치 규명 및 지식탐구에 그 목적이 있다면 예술은 진실을 찾고 종교는 해탈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 문화재와 다른 사찰문화재는 신앙의 대상이란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그 관리방법도 특수성을 지닐 수 밖에 없으나 신앙의 대상임을 강조하여 민족 문화예술의 의미를 상실할 때의 문제점과 사찰문화재의 특수성을 외면했을 때의 문제점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홍교수는 설명했다.



◇홍윤식교수

김표영씨 배첩장 지정

문체부, 승전무·입사장도 인정

문화체육부는 9일 배첩장(裵貼狀·서화나 서책에 종이나 비단을 발라 처리하는 기능)을 중요 무형문화재 제102호로 신규지정하고 김표영씨(70)를 기능보유자로 인정했다.

문화체육부는 ‘배첩’이 오늘날 ‘표구’라는 용어로 통용되고 있으나 이는 일본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때문에 조선조도화서의 직책명인 ‘배첩장’으로 명명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또 이미 지정된 제21호 승전무(勝戰舞)에 함정자씨(53) 업공자씨(52)를, 제78호 입사장(入絲狀)·그릇표(52)를 파고 은실을 넣어 장식하는 기술을 가진 사람에 홍정실씨(49)를 추가로 인정했다.

유촌동 석조여래좌상 광주시 문화재 21호 지정

광주광역시시는 지난 8일 유촌동 석조여래좌상을 시 문화재자료 21호로 지정했다. 이 석조여래좌상은 고려불상의 전통을 간직한 조선전기의 석불이다.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항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항비를 사용해 보세요!

태아가 엄마의 땀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 받는 것처럼 신권혈(배꼽)에 항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항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항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항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27자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오.

제품문의: (株)고려물산, 한국 방향연구소
수신자 부담 080) 200-4545, 02) 755-9821

한국 사찰의 주련

권영한

화를 돕고 계시네
널리 지혜와 방편으로 중생근기에 따라
오승의 성증을 교화하시네.

해설 유하사는 경북 안동군 와룡면 와룡산에 있는 고찰이

중생 교화하는 미륵불 예찬

다. 산이름이 암시하듯 이 산은 용이 누운 모습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용과 관련된 전설도 많다. 유하사란 절의 이름도 여름에 용이 내려와 사탕과 더불어 노닐었다는 얘

가에서 비롯된 것이라 한다. 용화전은 미륵을 주존으로 모시는 당우다. (대예찬)의 한 구절인 이 주련의 내용은 미륵불의 위신력 중에서도 부처님을 도와 중생을 널리 교화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미륵부처님이 어

으로 부처가 될 후보자로 이해하면 된다. 우리가 미륵보살이라고 하고 미륵부처님이라고도 하는 것은 이 일생보처불로서의 미륵과 내세불로서의 미륵을 혼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무튼 미륵불은 부처님의 보처불로서 법신불의 세계인 적광토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여러 세상의 다양한 중생을 근기에 따라 보살피며 교화하고 있음을 이 예찬문은 강조하고 있는데 끝 구절의 오승은 인(人) 천(天) 성분(成身) 연가(緣覺) 보살(菩薩)의 부처님이 임멸한 뒤에 성불해서 그 자리를 보충하는 이란 뜻

“어려운 역경 속에서 佛事(불사)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스님께 알려드리는 귀중한 정보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불가사의한 영험력을 나타내는 신비의 佛塔다라니”

◎ 佛塔다라니 자체에서 약하고 나쁜 운기를 강하고 좋은 운기로 바꾸어주는 강력한 힘이 발산되어 입증된 본회의 佛塔다라니 2종류를 사용함으로써 인체(人體)와 영계(靈界)에 광범위한 기(氣)의 흐름을 체르하여, 길흉화복을 판단할 수 있고, 조상영을 판단하여 재를 통해 변화시키고 또한 佛塔다라니로서 영(靈)을 천도시키는 방법 등이 수록된 귀중한 정보책자를 일차로 1,000군데 사함에 보내드리려 합니다.

<연락처>는 대로 보내드리오니 주소, 사할명, 전화번호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자는 현재 사함을 운영하시는 스님에게만 1권씩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이 방법은.....

- ① 신도 개개인의 현재의 과과 그 신도의 남근, 부인, 자식, 부모, 형제들의 운까지도 그 자리에서 직접 확인해볼 수 있고 이 방법으로 스님께서 신도들의 나쁜 운세를 좋은 운세로 바꾸어줄 수 있으며
- ② 영가의 병의상태, 관념과광의 방해를 확인하여, 영가의 병의 및 관념과광을 원도, 차단하는 원리를 보여줄 수 있으며
- ③ 신도들의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여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방해줄 수 있으며
- ④ 산상에 달이 난 것을 해결해 줄 수 있고 산소를 잘못 써서 조상영이 천도되지 못하고, 그래서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산소이동 그 산소 자리를 좋은 대기로 넘겨주도록 하여 후손들이 발복하도록 해줄 수 있고
- ⑤ 집터나, 상가, 사무실 등에 좋은 운기가 계속적으로 펼쳐도록 하여 만사행통하도록 해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정보를 알려드리는 스님은 다년간 경험을 해본결과, 그 신비성이 확실함을 알게 되어, 이번 기회에 책자를 만들어 보내드리고, 사함을 직접 방문하여 어려운 역경을 겪고 있는 스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기쁘게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 佛子들 대부분은 자신의 현재의 운세와 운명을 몹시 알고자 하며 또한 나름대로 간절한 염원과 소원이 있어 이것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을 스님들께서 계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불탑다라니가 스님의 기도법과 함께 그 역할을 충실히 해주실 것입니다.

■ 상담문의: 대한불교 **보문포교원** (원장 각광)
부설: 불교바라밀 건강연구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 3동 5번지 (한신상가 5동 5층)
전화: (051) 864-3740

■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0335) 34-9490, 39-1906, 야간(0342) 706-3060